<반짝반짝 한국어> 혼술 유행...피로에 지친 직장인 '힐링 공간'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 5 episode 5.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with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M: 이젠 정말 날씨가 꽤 쌀쌀해졌네요.

F: 그렇죠?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 날에는 소주 한 잔에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져요.

M: 응? 언제는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다며 분위기 잡더니 이제 본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F: 원래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나이를 먹으니까 이렇게 술 한 잔 마시고 싶은 날이 생기더라고요.

M: 맞아요. 그런 날이 있죠. 그럼 녹음 끝나고 같이 술 한 잔 할까요?

F: 오늘은 말고요, 다음 주쯤에 한 잔 해요. 오늘은 혼자 마시고 싶어서요.

M: 여자 혼자 술을 마시겠다고요? 그거 한국에서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남자친구에게 차였거나 인생이 너무 힘든 사연 있는 여자들이 혼자 술 마시면서 울고 그러잖아요.

F: 전에는 그랬죠. 그런데 요즘은 혼자 술 마시는 게 꽤 유행이거든요. '혼술'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M: '혼술'이요? 전 '혼밥'은 들어 봤는데 '혼술'이란 표현도 있군요.

F: 네. '혼술'은 '혼자 마시는 술'을 말하는 건데요. Stefano 씨 말대로 전에는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면 친구가 없어 보인다거나, 왕따처럼 느껴져서 혼자서 밥을 먹을 거면 안 먹겠다, 혼자 술 마시는 건 너무 슬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네요.

M: 맞아요. 한국에서는 혼자 밥 먹거나 술 마시면 정말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죠. 저도 최근에 혼자 밥 먹는 사람, 즉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F: 최근 한국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혼자 사는 1 인가구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생활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남의 눈치 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취향대로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M: 하긴 친구들 만나서 메뉴 정하고, 친구 배려하느라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도 있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 한 잔 하면 1 시간 반은 후딱 가는데 그런 게 귀찮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F: 네. 저도 혼자 먹는 게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먹으면 돈도 혼자 먹을 때보다 많이 들기도 하고요. 시간과 돈 모두를 아끼고 싶다면 혼자 먹는 게 편하죠.

M: 그런데 전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술 한잔 하고 마음 속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혼술 문화가 유행한다는 건 좀 의외네요.

F: '혼밥족'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과거와 달리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면서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혼술' 문화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와 봤어요.

M: 재미있겠네요! 이 기사는 최근 한국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F: 네, 맞아요. 여러분 함께 들어 보시죠. 들을 때 '혼밥', '혼술', '1 인가구',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홀로족', '얕은 인간관계', '스낵컬처' 등의 표현에 집중해 보세요.

N: '독일주택(独一酒択)'. 서울 대학로의 1 인용 술집입니다. 이름부터 '홀로 한 잔의 술을 마시네'란 뜻입니다. 지난해 8 월 한옥을 개조해 문을 열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이 꽤 났습니다. 독일주택을 운영하는 하덕현 사장은 "처음에는 1 인 술집이 아직 한국에선 무리가 아닌가 후회도 했지만 점점 찾는 이가 늘어나 요즘엔 굉장히 바쁘게 지낸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처럼 '혼밥' 문화에 이어 '혼술'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혼밥은 혼자 먹는 밥, 혼술은 혼자 마시는 술의 줄임말입니다. 1 인 가구가 눈에 띄게 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젊은 층이 소비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들은 술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술을 시켜 마십니다. 그리고는 혼자 와서 마시고 갔다는 인증샷을 자랑스레 SNS 에 올립니다.

카페와 술집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미 너무 많은 관계 맺기가 이뤄진 탓에 오프라인에서 굳이 친구를 사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혼술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잦은 회식 탓에 지친 직장인까지 퇴근길에 편하게 술 한잔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혼술은 더 이상 외롭거나 사연 있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엔 주택가와 시장통에도 1 인용 술집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손님군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1 인용 술집이 늘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본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는 경기 불황에 나홀로족까지 증가하면서 1 인용 술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그는 "일본에선 퇴근 후 가볍게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가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었다. 저렴한 술을 오래도 아닌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마시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담 없이 언제든 줄길 수 있는 혼술 문화가 점점 더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전미영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술까지 혼자 마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 맺는 걸 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인간관계는 얕아질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도 '스낵컬처(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무언가를 즐기는 문화)'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전미영 교수의 진단입니다.

F: 어때요? 흥미로운 내용이지요?

M: 네, 그러네요. 이 기사에서는 먼저 혼술 문화의 단면을 소개하고, 혼술 문화가 등장한 원인을 분석한 후 전문가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좀 자세히 내용을 알아볼까요?

F: 그러죠.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N: '독일주택(独一酒択)'. 서울 대학로의 1 인용 술집입니다. 이름부터 '홀로 한 잔의 술을 마시네'란 뜻입니다. 지난해 8 월 한옥을 개조해 문을 열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입소문이 꽤 났습니다. 독일주택을 운영하는 하덕현 사장은 "처음에는 1 인 술집이 아직 한국에선 무리가 아닌가 후회도 했지만 점점

찾는 이가 늘어나 요즘엔 굉장히 바쁘게 지낸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처럼 '혼밥' 문화에 이어 '혼술'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혼밥은 혼자 먹는 밥, 혼술은 혼자 마시는 술의 줄임말입니다. 1 인 가구가 눈에 띄게 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젊은 층이 소비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들은 술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술을 시켜 마십니다. 그리고는 혼자 와서 마시고 갔다는 인증샷을 자랑스레 SNS 에 올립니다.

M: 이 부분에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젊은 사람들이 늘었다는 걸 예를 통해 보여 주고 있는데요.

F: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 사는 1 인 가구가 많아졌고,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나의 취향,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M: 그런데 왜 혼자 와서 마시고 갔다는 걸 사진을 찍어서 SNS 에 올리는 걸까요?

F: 글쎄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 아닐까요? 혼자 시간을 즐기고는 있지만 사실은 SNS 를 통해 사진을 찍어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있는 거죠.

M: 그런데 보통 '인증샷'은 '나 이런 거 해 봤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혼술'이 트렌드니까 나도 한번 술 혼자 마셔 봤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F: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만큼 요즘 혼술 문화가 유행이라는 거겠죠. 그럼 다음 부분 들어 봅시다.

N: 카페와 술집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미 너무 많은 관계 맺기가 이뤄진 탓에 오프라인에서 굳이 친구를 사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혼술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잦은 회식 탓에 지친 직장인까지 퇴근길에 편하게 술 한잔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혼술은 더 이상 외롭거나 사연 있는 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엔 주택가와 시장통에도 1 인용 술집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손님군도 다양합니다.

M: 앞에서 언급한 1 인 가구 및 개인주의의 확산에 더해 다른 원인도 소개했네요.

F: 네. 여기서는 일단 과거와 달리 술집이 카페처럼 꾸며져 혼자 가도 부담스럽지 않아졌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굳이 사람들과 실제 생활에서 부딪힐 필요가 적어졌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어요. 또 회식처럼 술을 강요하는 피곤한 분위기가 싫어서 마음 편하게 한 잔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M: 여럿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내는 술집도 물론 많지만 요즘엔 술집인지 카페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조용하고, 인테리어도 좀 다르게 해 놓은 곳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전 소셜 미디어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오프라인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F: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둘로 나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 보지요.

N: 이렇게 1 인용 술집이 늘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본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는 경기 불황에 나홀로족까지 증가하면서 1 인용 술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그는 "일본에선 퇴근 후 가볍게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가 비교적 오래전부터 있었다. 저렴한 술을 오래도 아닌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마시는 분위기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담 없이 언제든 즐길 수 있는 혼술 문화가 점점 더 자리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전미영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술까지 혼자 마신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 맺는 걸 피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인간관계는 얕아질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도 '스낵컬처(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무언가를 즐기는 문화)'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전미영 교수의 진단입니다.

F: '의견이 엇갈리다'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두 의견이 나왔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의견이 있었지요?

M: 한 전문가는 경제가 어렵고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늘면서 혼술 문화는 더 확산될 거라고 봤고요. 다른 한 전문가는 혼술 문화는 인간관계가 약화되고, 얕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봤네요.

F: 잘 설명해 줬어요. 앞에서는 `1 인 가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요즘에는 '나홀로족'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나홀로족'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만의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코쿤족과 비슷한 의미예요.

M: 그렇군요. '나홀로족'이 느는 데다가 경제 상황까지 안 좋아지니 그냥 간단히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 거다 이거네요.

F: 네. 그리고 다른 전문가는 밥을 같이 먹고 술을 같이 마시는 건 인간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행동인데 이를 피한다면 인간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다, 점점 스낵처럼 즐기는 가벼운 인간관계가 늘어갈 것이다라고 걱정했고요.

M: 현대 사회를 잘 보여주는 단어 중 하나가 '스낵컬처'라고 생각하는데 혼술 문화에도 '스낵 컬처'가 적용되는군요. 혼술은 간단하고 정말 편하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가 더 좋네요.

F: 저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꼭 혼자 술을 마시며 겨울을 음미해 보겠어요.

M: 하하. 네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F: 오늘은 한국의 혼술 문화에 대한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F: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M: The piece of news from above is an adapted excerpt from the article '혼술 유행…피곤에 지친 직장인 힐링 공간' that appeared on 매경이코노미, issue no. 1802.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